

연구논문

## 사회적 신뢰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인식의 다중매개효과\*

이상희\*\*

위험인식은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사회·심리적 요소이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탐구의 필요성이 높아진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위험인식의 속성과 특성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사회관 및 가치관이 위험인식을 구성하고, 구성된 위험인식이 다시 사회에 대한 반응행동을 일으키는 설명하는 문화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물리적 위험인식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의 매개적 역할을 각각 확인하였다. 그러나 매개모형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방향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경쟁매개’ 또는 ‘이론적 비밀관적 매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위험인식이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양가적 매개효과를 내며, 그 영향의 크기가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식 등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유기적인 작동방식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다양한 학문적 탐구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사회적 약자, 위험인식, 신뢰, 다중매개효과

\* 논의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조언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초고를 읽고 의미있는 의견 주신 이화여대 행정학과 전지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통합과정(sxsocial21@gmail.com).

## I. 서론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영향과 그 경로를 확인, 비교하며, 위험인식(risk perceptions)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 2년 넘게 전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 코로나19의 유행, 2022년 이태원에서의 압사 사건, 2023년 여름 오송 지하철도 침수사건 등의 발생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다양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과 관련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이같은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회 구성원의 위기감과 주관적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수현·정순돌 2019). 따라서 위험에 의한 개인의 안전감 훼손과 그로 인한 공동체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그간 국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의 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신뢰수준, 계층의식, 사회·정치적 성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고은·김경근 2022; 석승혜·장안식 2016; 이지은·이재완 2015).

그러나 역시 사회·심리적 요인들 중 하나인 위험인식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이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들에 관한 인식이 노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조수현·정순돌의 연구(2019)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위험인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1980년대부터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가 사회심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온 것과 달리(Siegrist & Árvai 2020) 국내에서, 특히 학술연구 분야에서 위험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의 축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임현철 2019). 따라서 위험의 종류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차이 역시 거의 탐구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위험인식의 속성과 특성에 초점을 두고, 위험인식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 perception)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각각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사회적 신뢰와 위험인식, 위험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가 문화이론이 주장하듯, 개인의 문화적 편향(사회관 및 가치관)이 위험인식을 구성하고 구성된 위험인식이 다시 사회에 대한 반응행동을 일으키는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도 유효한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위험인식을 위협의 영향범위에 따라 물리적 위험인식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으로 구분하고 위협의 종류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실증하였다.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의 형성에 사회적 신뢰가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위험인식의 역할을 비교, 검증함을 통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이들의 복합적인 작동 매커니즘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다양한 학문적 규명 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위험인식(risk perception)

#### 1) 위험인식의 정의 및 특징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개인 및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Renn 2008; Slovic 1999; Dake 1992; Douglas & Wildavsky 1983). 실존하는 위험이 특정 사회 계층이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나라마다 특정 위험에 대한 인식의 방향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정진성 외 2010). 따라서 위험의 측정과 평가에 있어 객관적 위험만큼 주관적이며 구성적인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이 중요하다.

위험인식은 ‘즉각적 또는 장기적으로 건강과 웰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로 정의된다(ScienceDirect 2023). 위험인식은 주관적 판단과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의 유형과 위험을 인식하는 주체, 위험에 노출되는 대

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먼저 위험의 유형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는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Slovic 2010; Slovic 1999; Wildavsky & Dake 1990). 위험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통계청은 2022년 사회조사 안전영역에서 국가안보, 먹거리 위생, 식량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위험, 정보보안 문제, 범죄, 화재, 교통사고, 각종 질병, 개인정보 유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정진성 외(2010)에 따르면 세계은행(World Bank)은 위험의 영역과 수준을 교차하여 자연재해 위험, 건강위험, 생애위험, 사회위험, 경제적 위험, 정책/정치 위험, 환경위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위험의 유형을 지구적 생태위험, 자연재해 위험, 국가적 안보위험, 건강의 위험, 경제적 생계위험, 기술적 재난위험, 사회적 해체 위험으로 나누어 2008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자연재해, 에너지 고갈, 기후변동 등과 같은 생태위험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범죄, 환경오염, 생계위험, 건강위험, 재난 위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화 사회라는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각 위험영역별 위험인식을 확인한 정순돌 외(2011)의 연구에서는 위험의 종류를 국가안보, 자연재해,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자원고갈, 도덕성 부족, 신종질병, 범죄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신종 질병에 대한 위험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따라 위험인식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과 본인이 처할 위험에 대한 인식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Park et al.(2001)의 연구는 식수, 라돈, AIDs, 심장질환의 위험에 대해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는데,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의 위험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가 위험한 편이라면 개인이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높은 확률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위험에 처할 위험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임현철 2019; 정진성 외 2010).

위험인식은 예방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개인적 위험인식은 물론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에도 적용된다. 태도변화 연구들(attitude-change research)에 따르면 유발된 공포와 행동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yler 1984). 유사한 결과가 최근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전염병과 관련된 다수의 위험인식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Honarvar et al. 2020). 위험인식에 따라 정책 및 정치적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Odkhuu · 김태형 2022) 역시 예방행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위험인식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 perception)

위험인식이 왜 주관적이며 구성적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론적 규명 시도가 있었다. Wildavsky & Dake(1990)의 연구는 위험인식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어 온 이론들을 정리, 제시하였는데, ① 지식이론(knowledge theory), ② 성격이론(personality theory), ③ 경제이론(economic theory), ④ 정치이론(political theory), ⑤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이 그것이다. 각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지식이론은 어떤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더 잘 이해할수록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보며, 성격이론은 개인의 위험의 선호 또는 회피적 성향에 따라 하나의 현상에 대한 위험인식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경제이론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적게 받아들인다는 주장이며, 정치이론은 성, 연령, 사회계층, 이념 등과 같은 정치 성향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진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화이론은 개인이 세계관, 이념, 믿음 등에 따라 문화적 편견(cultural biases)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위험을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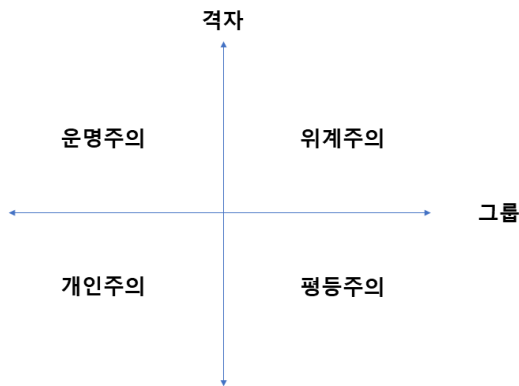
이 중 후속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론은 문화이론이다. 문화이론은 위험 인식, 신념 체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과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Dake 1992).

위험인식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강조한 최초의 연구는 Douglas & Wildavsky (1983)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위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사람들의 위험인식이 객관적인 위험 측정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편향(사회관 및 가치관)에 의해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고, 기술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을 중심으로 문화적 요인이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가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사람은 인지된 위험이 자신의 문화적 편향과 일치하는가에 따라 위험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후 위험인식에 대한 문화적 설명은 사회 내 문화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Mary Douglas에 의해 고안된 ‘격자-집단 이론’(The Grid-Group Theory)을 적용한 연구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분화되었다. Douglas의 격자-집단이론은 집단과 격자라는 2개의 축으로 하여 개인 삶의 방식(way of life)을 구분하여, 개인의 사회생활 참여 가변성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Thompson & Wildavsky 1990).

격자와 집단에 따라 개인의 유형을 나누는 이 접근은 위험인식을 설명함에 있어

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위험인식이 두 가지 문화적 접근 방식, 즉 개인이 속한 그룹과 사회적 위계와 같은 격자(grid)에 대한 지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그룹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이며(Kahan 2006), 격자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사회 내 범주 분화의 정도와 그 중요성을 측정’한다(Kahan et al. 2007). 그룹 지향적인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집단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위험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격자 지향적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위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정진성 외 2010; Kahan 2008; Kahan et al. 2007; Dike 1992; Thompson & Wildavsky 1990). 이처럼 그룹과 격자라는 축에 따라 개인은 평등주의, 개인주의, 위계주의, 운명주의와 같은 문화적 편향을 갖는 부류로 분류될 수 있고, 이것이 개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을 해석, 강조, 관리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Kahan 2008; Dike 1992; Thompson & Wildavsky 1990).



<그림 1> 격자-집단에 따른 문화적 편향 분류  
(Dike 1992; Thompson & Wildavsky 1990)

문화이론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들 문화적 편향에 따라 위험별로 다른 민감도가 나타남을 실증하였다(Dike 1992; Thompson & Wildavsky 1990; Wildavsky & Dike 1990). 대표적으로 Wildavsky & Dike(1990)의 연구 결과, ‘평등주의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 및 환경과 관련된 위험을 높게 인식하지만 ‘위계주의’와 ‘개

인주의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적 위험 감수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었다. 반면에 '개인주의적 편향'을 가진 이들의 위험인식은 평등주의자보다 전쟁이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의 부족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화이론은 단지 문화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준다고만 설명하지 않는다. 문화이론의 기본 전제가 문화는 사실보다 앞서 사회의 위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Kahan 2006), 이렇게 형성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다시 개인이 이상적이라고 믿는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반영 또는 강화하기 때문이다(Kahan 2008). 즉 위험인식은 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다시 개인 세계관의 일부분이 되어 그들의 위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Dake 1992) 결국 사회에 대한 개인의 반응 행동과 태도에 다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3)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문화이론을 적용한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① 위험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 ② 개인의 사회관 및 가치관, ③ 인구사회적 배경, ④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Siegrist & Árvai 2020; Earle & Siegrist 2008; Wildavsky & Dake 1990; Tyler 1984). 위험인식의 형성에는 위험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연구자들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주장되는 것이 개인의 경험과 배경, 사회관 및 가치관과 신념이 종합되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trust)이다(Wachinger et al. 2013; Earle & Siegrist 2008; Renn 2008; Slovic 1999; Wildavsky & Dake 1990).

Renn(2008)에 따르면 신뢰는 '유능감 지각(perceived competence)', '객관성(objectivity)', '공정성(fairness)', '일관성(consistency)', '진실성(sincerity)', '믿음(faith)', '공감(empathy)'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인의 사회관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언제나 위험감수를 수반하기 때문에 위험인식과 필연적 관계를 가진다. 신뢰에 위험인식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Renn의 주장과 같이, 이 관계에 대한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들은 신뢰수준과 위험인식이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Siegrist & Árvai 2020; Earle et al. 2010; Earle & Siegrist 2008; Flynn et al. 1992; Wildavsky & Dake 1990).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험인식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선

행연구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arle & Siegrist(2008)는 위험인식과 신뢰의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 그 이론적 기반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신뢰가 ‘복잡하고 맥락적(complex and contextual)’으로 형성되며, ‘특정한 상황적 요인(certain contextual factors)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Earle et al. 2010).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서도 신뢰와 위험(인식)이 단방향의 확정적인 관계는 아님을 주장한다(Cook 2005; Molm et al. 2000; Kollock 1994). 신뢰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위험인식 역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양방향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Kollock(1994)은 높은 수준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신뢰에 대한 테스트로서 위험이 먼저 존재해야만 하며, 신뢰와 위험의 지속적인 교환 경험의 다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실험설계를 통하여 실증하였다. Cook(2005) 역시 신뢰는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함을 지적한다. 하지만 Cook(2005)의 연구에서 경제·사회적 위험/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미국인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신뢰 구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본인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문화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위험인식과 신뢰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소수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신뢰가 위험인식 수준을 낮추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김수아·임동균(2016)의 연구는 위험인식에 계층태도와 더불어 ‘일반화된 대인 간 신뢰(generalized interpersonal trust)’와 같은 주관적 요인들이 강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신뢰를 사회 신뢰와 제도 신뢰로 나누어 본 정진성 외(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를 불신하는 집단이 신뢰하는 집단보다 인적 재산을 제외한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였는데, 저위험요인보다는 고위험요인에서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들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위험인식과 신뢰에 대한 관계는 다수의 실증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방향의 관계를 단정할 만한 이론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위험인식에 개인의 주관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신뢰 이외에도 개인의 특성과 주관적 인식을 주요 영향요소로 주장하는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구의 실증 연구들에서 확인된, 백인 남성들이 여러 종류의 위험에 있어 타 인종이나 성별보다 각종 위험을 적게 평가한다는 ‘백인 남자 효과(white male effect)’



는(Kahan et al. 2007; Satterfield et al. 2004; Finucane et al. 2000; Slovic 1999) 개인적 특성, 즉 인구·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구·사회적 요인은 위험인식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수아·임동균(2016)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위험에 대해 30~40대, 여성, 비도시 지역 거주자, 낮은 계층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높은 위험인식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정진성 외(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대부분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높은 위험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비교적 높은 위험인식을 가짐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는 Satterfield et al.(2004)이 지적하듯 단순히 인구·사회적 조건에 따른 사회적 우위나 불이익이 아니라, 취약성과 사회·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주관적 경험 및 인식이 위험인식을 결정함으로써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인구·사회적 요인이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관적 자기인식 역시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위험인식은 위험의 유형과 개인의 경험, 사회적 배경, 사회관 및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의 예방태도 및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에 따른 차이는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위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별이 어려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이론의 관점에서 특히 개인의 사회관 및 가치관에 따라 형성되는 신뢰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이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위험인식이 다시 개인의 신뢰수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 영향 수준에 대한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커니즘과 그 강도에 관한 추가적인 실증 연구와 이론화 노력이 필요하다.

## 2.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는 집단은 국내 선행연구들에서조차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집단이 포함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지은·이재완(2015)은 사회적 약자란 소외 또는 취약계층을 의미한다고 보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황세영·강정석·강혜자(2017) 역시 사회적 약자란 사회 공동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으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빈곤층, 이주민,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 및 특정 소수집단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제한적인 이동성에 주목한 박인권(2018)은 소득, 주거, 직업, 건강, 교육, 사회관계, 안전과 환경, 참여, 유희의 영역에서 저학력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등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김고은·김경근(2022)는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저소득층,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한편 석승혜·장안식(2016)은 ‘마이너리티’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였다. 성, 취향, 신체, 결혼, 지역, 노동, 빈곤, 디아스포라의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본 것이다.

반면 윤인진·송영호(2018)와 윤인진(2020)의 연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구 규모와 권력의 크기, 그로 인한 차별의 정도,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성원권)에 따라 다른 차별을 받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노인, 여성, 장애인을, 소수자로 탈북민,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자, 노인 등 신체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이영아 2013; 박인권 2018에서 재인용).

<표 1>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는 대상

| 연구                       | 사회적 약자의 대상                         |
|--------------------------|------------------------------------|
| 이지은·이재완(2015)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
| 황세영 외(2017)              | 빈곤층, 이주민,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            |
| 박인권(2018)                | 빈곤계층, 장애인, 저학력자, 외국인, 여성, 청년, 노인 등 |
| 윤인진·송영호(2018), 윤인진(2020) | 노인, 여성, 장애인                        |
| 김고은·김경근(2022)            | 저소득층,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

그런데 어떤 범주의 인구집단이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사회적 약자는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태도는 다수자의 시각을 대변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윤인진 외 2018)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한 사회의 태도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는 다양한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대도시 거주 여부, 정치적 성향 및 신념, 사회에 대한 관점 및 지향성, 객관적 및 주관적 계층 인식, 사회위험인식이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인구·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는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고은·김경근 2022; 윤인진 2020; 이지은·이재완 2015).

인구·사회적 요인보다 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심리적 요인에서는(Harrison et al. 2006; 김고은·김경근 2022에서 재인용) 계층의식과 개인의 사회·정치적 성향,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고은·김경근(2022)와 이지은·이재완(2015)의 연구는 각각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POUM: Prospect of Upward Mobility)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는데, 자기 이해(self-interest)에 기반하여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조수현·정순둘(2019)의 연구에서는 청·장년층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높은 인식이 노인 낙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개인의 성향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가 인지와 감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된 황세영 외(2017)의 연구는 사회지배 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이 낮은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게 우호적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심리적 요인 중 마지막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는 필요시 언제든지 타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김고은·김경근 2022). 석승혜·장안식(2016)의 연구에서 신자유주의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삶의 통제감 상실은 차별 태도를 강화하지만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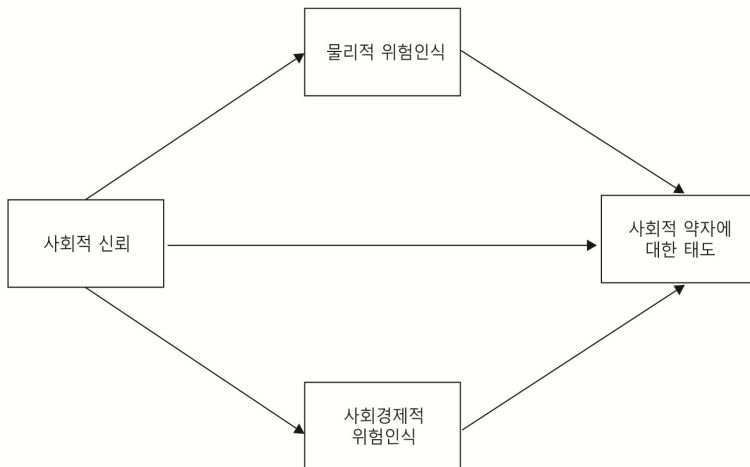
차별태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신뢰는 차별 태도의 개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이재원(2015)의 연구는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에 정부 신뢰와 더불어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관 및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 편향이 위험인식을 구성하고, 구성된 위험인식이 다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함을 사회적 신뢰, 위험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물리적 위험인식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주) 통제변수: 성별, 나이, 학력,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재정상태.

##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21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이하 서울서베이)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도시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 삶의 질 및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서울시가 매년 시행하는 조사이다.

서울서베이는 도시민이 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구분하여,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질문하고 있다. 국내 설문조사 중 이처럼 다양한 위험에 따른 인식을 구분하는 조사가 드물기 때문에, 각종 위험인식의 영향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인 서울을 배경으로 하므로 응답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환경의 특성상 비교적 균질한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가 활용한 데이터는 2021 서울서베이 가구용과 가구원용 데이터를 결합한 자료이다. 층화집락추출방식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0,441명을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대일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한 자료로,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기에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의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2021 서울서베이 조사대상 전체인 40,44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본 연구는 장애인, 여성, 노인, 빈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정도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으나, 장애인, 여성, 노인은 노약자로서, 빈자는 공적·사적 이전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로 오랜 기간 동안 합의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또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합의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김고은·김경근 2022; 윤인진 2020; 윤인진 외 2018; 박인권 2018; 황세영 외 2017; 이지은·이재완 2015).

본 연구의 자료인 서울서베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① ‘내 아이(있

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②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③ ‘어르신(65세 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분담할 의향이 있다’ ④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매우 동의’)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항목에 대한 합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들 4개 항목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0.618로 나타났다.<sup>1)</sup>

## 2) 독립변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문항들은 ‘대부분의 사람들’(most people)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임동균·양종민 2022).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를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나 정부 신뢰, 정책 신뢰와 구별되는(박종민 2014) ‘사회 구성원 일반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사회 구성원 일반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 서베이에서 신뢰 정도를 묻는 대상 중 ‘이웃’,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에 관한 항목의 합을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대도시인 서울에서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지만, 상대의 사회적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배경 지식과 정보는 부족한 낯선 대상들이다. 따라서 불특정 사회 구성원 일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3개 항목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0.823이었다.

## 3) 매개변수: 물리적 위험인식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

서울서베이에서는 우리 사회의 위험 정도에 관하여 ① ‘자연재해(태풍, 지진, 홍수 등)’, ② ‘감염병(코로나, 사스,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등)’, ③ ‘안전사고(화재, 폭발사고, 붕괴사고, 땅 꺼짐(싱크홀) 등)’, ④ ‘폭력 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강도, 유괴, 폭행 및 살해 등)’, ⑤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개인 정보 유출 문제)’, ⑥ ‘인터넷상의 괴롭힘(모욕, 따돌림, 협박, 명예훼손 등)’, ⑦ ‘경제위기(금융위기 등)’, ⑧ ‘실업’, ⑨ ‘사회갈등(빈부격차, 불평등, 세대갈등)’, ⑩ ‘부정부패’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그 심각도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1) 내적 일치도는 일반적으로 0.7 이상이 신뢰할 만한 값(reliable)으로 간주되나, Nunnally(1978)에 따르면 탐색적(exploratory) 연구의 경우 0.6 이상은 충분히 허용될 만한(acceptable)한 값이다.

개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위험과 구조적 위험인식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본 연구는, 상술한 항목 중 자연재해, 감염병, 안전사고, 폭력범죄, 경제 위기, 실업, 사회갈등, 부정부패의 위험인식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정진성 외(2010), Wildavsky & Dake(1990)의 분류를 참고하여 위험의 종류를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인 물리적 위험(자연재해, 감염병, 안전사고, 폭력범죄)과 사회 구조적 위험인 사회·경제적 위험(경제위기, 실업, 사회갈등, 부정부패)으로 재구성하고, 각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물리적 위험인식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0.745, 0.820이다.

#### 4) 통제변수

<표 2> 변수의 구성

| 변수    |                                    |              |                                     |
|-------|------------------------------------|--------------|-------------------------------------|
| 중속 변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br>(동의 정도 5점 척도의 합)  |              |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                |
|       |                                    |              | 가난은 개인의 노력 여부보다 사회제도의 책임            |
|       |                                    |              | 어르신(65세 이상)의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세금부담 의향이 있음 |
|       |                                    |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 독립 변수 | 사회적 신뢰<br>(사회적 신뢰 정도 5점 척도의 합)     |              | 이웃                                  |
|       |                                    |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       |                                    |              | 국내 거주 외국인                           |
| 매개 변수 | 우리 사회의 위험 심각성<br>(인지 정도 5점 척도의 평균) | 물리적 위험 인식    | 자연재해, 감염병, 안전사고, 폭력범죄               |
|       |                                    | 사회·경제적 위험 인식 | 경제 위기, 실업, 사회 갈등, 부정부패              |
| 통제 변수 | 성별                                 |              |                                     |
|       | 연령                                 |              |                                     |
|       | 학력                                 |              |                                     |
|       | 월 가구소득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       | 주관적 재정상태                           |              |                                     |

통제변수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험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재정상태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이분변수(여성 0, 남성 1),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학력은 ‘1. 중졸 이하’; ‘2. 고졸 이하’; ‘3. 대졸 이하’; ‘4. 대학원 이상’을 연속변수로 간주하였다. 월 가구 소득 역시 ‘1. 200만 미만’; ‘2. 2~300만 미만’; ‘3. 3~400만 미만’; ‘4. 4~500만 미만’; ‘5. 500만 이상’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재정상태는 이들 영역에 있어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에 대한 주관식 응답점수를 활용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대상자 40,44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오차 공분산 구조(error covariance structure)를 포함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SEM: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생변수들이 측정되지 않은 원인 공유를 가정하는 오차 공분산(Kline 2016: 이현숙 외 역)을 본 연구에 포함한 것은 합리적인 모형 설정을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측정이 어려운 사회심리적 변수들 간의 관계 매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했듯, 위험인식 수준은 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리적 위험인식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본 모형에서 통제되지 못한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 매개변수들의 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할 경우, 본 모형의 자유도가 0이 되므로 포화식별모형(just-identified)으로 모형 적합도가 완벽해진다. 따라서 오차 공분산 구조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보다는 포함한 모형에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향하는 계수 값  $a$ 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향하는 계수 값  $b$ 에 대한 무작위 정규 변수(random normal variable)를 각각 반복적으로 생성하여 간접효과( $a * b$ )를 여러 차례



계산한 뒤 ( $a * b$ )값에 대한 분포를 생성하여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재표집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보다 효율적인 추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Mehmetoglu 2018). 본 연구에서는 관측치 숫자만큼의 몬테카를로 무작위 추출 반복을 통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은 47%, 여성은 52.9%이며 학력의 경우 2/3가 넘는 대상자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높았다. 연령은 평균 47.4세였으며, 주관적 건강과 재정상태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모두 보통(5)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석대상의 특성

| 구분       | 분류          | 빈도(명)        | 백분율(%) | 합계(%)       |
|----------|-------------|--------------|--------|-------------|
| 성별       | 남           | 19,041       | 47.08  | 40,441(100) |
|          | 여           | 21,400       | 52.92  |             |
| 학력       | 중졸 이하       | 2,689        | 6.70   | 40,441(100) |
|          | 고졸 이하       | 10,600       | 26.20  |             |
|          | 대졸 이하       | 24,971       | 61.80  |             |
|          | 대학원 이상      | 2,181        | 5.40   |             |
|          |             |              |        |             |
| 월평균 가구소득 | 200만 원 이하   | 3,102        | 7.70   | 40,441(100) |
|          | 2-300만 원 미만 | 4,473        | 11.10  |             |
|          | 3-400만 원 미만 | 5,739        | 14.20  |             |
|          | 4-500만 원 미만 | 6,184        | 15.30  |             |
|          | 500만 원 이상   | 20,943       | 51.80  |             |
| 연령       | 평균: 47.394  | 표준편차: 15.678 |        | 40,441(100) |
| 주관적 건강상태 | 평균: 6.775   | 표준편차: 2.092  |        | 40,441(100) |
| 주관적 재정상태 | 평균: 5.937   | 표준편차: 2.029  |        | 40,441(100) |

연구대상자들의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값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사회적 신뢰의 평균값은 15점 만점에 7.03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20점 만점에 13.09점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위험인식의 수준은 3.72,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에 대한 수준은 3.87이었다.

<표 4> 주요 변수의 특성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13.09 | 2.568 | 4   | 20  |
| 사회적 신뢰        | 7.03  | 2.607 | 3   | 15  |
| 물리적 위험인식      | 3.72  | 0.708 | 1   | 5   |
| 사회·경제적 위험인식   | 3.87  | 0.710 | 1   | 5   |

##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신뢰, 물리적 위험인식, 사회·경제적 위험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신뢰는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물리적, 사회·경제적 위험인식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 전반적으로 나타난 약한 상관관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ean VIF: 1.47).

<표 5> 상관관계

|                  | 사회·경제적<br>위험 | 물리적 위험     |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약자에<br>대한 태도 |
|------------------|--------------|------------|-----------|------------------|
| 사회·경제적 위험        | 1            |            |           |                  |
| 물리적 위험           | 0.6022***    | 1          |           |                  |
| 사회적 신뢰           | -0.2069***   | -0.0925*** | 1         |                  |
| 사회적 약자에<br>대한 태도 | 0.1425***    | 0.1549***  | 0.1195*** | 1                |

주) \*\*\*  $p < 0.01$ .

### 3.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검증 결과

매개변수들 간 공분산을 설정한 본 연구의 모형은 자유도가 0인 포화식별모형으로 개선이 필요없는 모형이다. 현재의 모형개선지수가 카이제곱값 3.84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추가하더라도 적합도를 유의하게 개선하지 못한다. 이같은 결과는 절대 적합지수인 RMSEA(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0.000이며, 증분 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가 1.000임에서도 다시 확인 가능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RMSEA는 0.05 이하,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 TLI와 CFI는 0.9 이상이 양호로 간주된다(Kline 2016: 이현숙 외 역).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회적 신뢰는 매개변수인 물리적 위협과 사회·경제적 위협인식에 모두 유의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82$ ,  $p < 0.001$ ;  $\beta = -0.149$ ,  $p < 0.001$ ). 즉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아졌다.

한편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사회적 신뢰, 물리적 위협인식, 사회·경제적 위협인식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beta$ )를 비교해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beta = 0.135$ ,  $p < 0.001$ ), 사회·경제적 위협인식( $\beta = 0.120$ ,  $p < 0.001$ )과 물리적 위협인식( $\beta = 0.093$ ,  $p < 0.001$ )이 그 뒤를 이었다.

통제변수들에 있어서는 성별,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명오차 분산과 오차 공분산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 설명오차의 분산은 본 연구의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은 값으로, 사회적 신뢰와 위협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개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리적 위협과 사회·경제적 위협의 오차 공분산은 위협의 종류와 상관없이 개인의 위협인식 수준을 결정하는 공통적 요인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분산의 10.9%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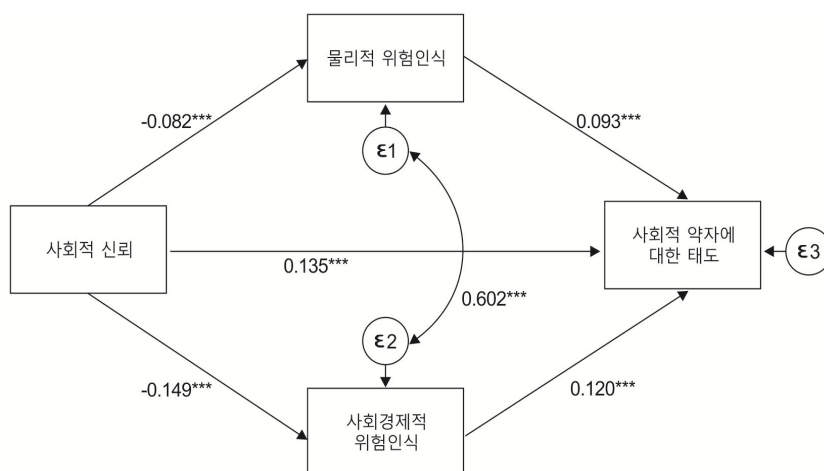
&lt;표 6&gt; 경로모형 모수치

| 경로계수                      | <i>B</i> | $\beta$   | <i>S.E.</i> |
|---------------------------|----------|-----------|-------------|
| 독립변수 → 매개변수               |          |           |             |
| 사회적 신뢰 → 물리적 위험           | -0.022   | -0.082*** | 0.005       |
| 사회적 신뢰 → 사회·경제적 위험        | -0.041   | -0.149*** | 0.005       |
| 매개변수 → 종속변수               |          |           |             |
| 물리적 위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337    | 0.093***  | 0.006       |
| 사회·경제적 위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434    | 0.120***  | 0.006       |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           |             |
|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133    | 0.135***  | 0.005       |
| 통제변수 → 종속변수               |          |           |             |
| 성별(남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291   | -0.056*** | 0.005       |
| 연령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000    | 0.001     | 0.005       |
| 학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207    | 0.055***  | 0.005       |
| 월 평균 가구소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035   | -0.018**  | 0.005       |
| 주관적 건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813    | 0.066***  | 0.007       |
| 주관적 재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0.014   | -0.113    | 0.007       |
| 설명오차 분산                   |          |           |             |
| 물리적 위험                    | 0.493    | 0.985***  | 0.001       |
| 사회·경제적 위험                 | 0.471    | 0.935***  | 0.002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6.120    | 0.940***  | 0.002       |
| 오차 공분산                    |          |           |             |
| 물리적 위험과 사회·경제적 위험의 오차 공분산 | 0.290    | 0.602***  | 0.003       |
| 설명력( $R^2$ )              | 0.109    |           |             |

주) \*\*\*  $p < 0.001$ .

경로모형의 모수치를 통하여 직,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0.135, 물리적 위험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0.008(-0.082\*0.093), 사회·경제적 위험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0.018(-0.149\*0.120)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사회적 신뢰가 물리적 위험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을 매개로 약자 태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0.109이다. <그림 2>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표준화 경로계수)

주1) 통제변수: 성별, 나이, 학력,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재정상태.

주2) \*\*\*  $p < 0.001$ .

본 연구의 모형에서 직접효과와 두 개의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만 두 효과의 부호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두 종류의 위험인식은 억제(suppression)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에 나타난 매개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반대라는 측면에서 Zhao et al.(2010)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경쟁매개(competitive mediation)’ 또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총효과의 크기보다 크지만 이것이 이론에 근거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론적 비일관적 매개’(김하형·김수영 2020)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간접효과의 추정치( $\beta$ )는 경로모형의 모수치를 통한 계산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사회적 신뢰는 물리적 위험인식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을 통해 약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재확인되었다.

&lt;표 7&gt; 물리적, 사회·경제적 위험인식의 매개효과 검증(Monte Carlo simulation)

|                 | 물리적 위험인식         | 사회·경제적 위험인식      |
|-----------------|------------------|------------------|
| 간접효과( $\beta$ ) | -0.008           | -0.018           |
| <i>S.E.</i>     | 0.001            | 0.001            |
| <i>z</i>        | -15.994          | -10.787          |
| <i>p</i>        | 0.000            | 0.000            |
| 신뢰구간            | -0.020<br>-0.016 | -0.009<br>-0.006 |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에 대한 개인 인식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 확인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위험인식과 그에 따른 공동체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으며, 더욱이 위험의 종류에 따른 영향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의 15세 이상 서울시민 40,44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신뢰수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의 정도와 방향은 위험인식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높은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위험과 사회·경제적 위험인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위험인식의 문화이론이 한국 대도시의 맥락에서도 유효한 설명력을 가짐이 실증되었다. 문화이론에서 설명하듯 위험인식이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는 기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1) 신뢰→위험인식 (2) 신뢰→약자에 대한 태도 (3) 위험인식→약자에 대한 태도라는 각각의 영향관계가 문화이론이 설명하는 ‘사회관 및 가치관→위험인식→사회에 대한 반응 행동’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는 물리적 위험과 사회·경제적 위험에 모두 부

적인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신뢰수준이 위협인식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 했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Siegrist & Árvai 2020; Earle, Siegrist, & Gutscher 2010; Earle & Siegrist 2008; Renn 2008; Flynn et al. 1992; Wildavsky & Dake 1990).

위험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 역시 형성된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시 개인의 세계관의 일부가 되어 개인의 사회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Odkhuu · 김태형 2022; Kahan 2008; Dake 1992). 다만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는 주관적 취약성이 사회적 약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이어짐을 실증한 연구와(김고은·김정근 2022; 이지은·이재완 2015)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계를 형성하고, 차별과 낙인을 확대할 가능성을 주장한 조수현·정순돌(2019)의 연구처럼 영향력의 부호에 관한 불일치가 존재하였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위협의 종류를 구분한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위협인식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정적(+)관계를 보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사회·경제적 위협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18$ ,  $p = 0.000$ ).

이처럼 위험인식이 높아질수록 약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위협의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가짐을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를 자기 이해(self-interest)로 설명하는 ‘복지지위론’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복지 수혜자의 우호적인 복지태도를 주장하는 복지지위론은 혜택(benefit)에 기반한 설명이다(안상훈 2000). 그렇다면 반대로 위험 예방행동으로써 위험(risk)측면에 기인한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또한 자기 이해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21세기,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환경에서 물리적 위협(자연재해, 감염병, 안전사고, 폭력 범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단지 운의 영역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위험(경제위기, 실업, 사회갈등, 부정부패)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대상의 상당수가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하여 경제위기와 실업, 사회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점은 연구결과에서의 높은 사회·경제적 위협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경로 또는 이유이든 사회·경제적 위협인식이 보다 더 우호적인 약자태도로 이어지는 것 역시 위험예방이라는 자기 이해의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위협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위협인식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가을에 수집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을 포함하는 물리적 위험이 사회·경제적 위험보다도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위험인식은 주관적이면서도 구성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 불안, 사회적 신뢰, 계층상승 가능성(POUM)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김고은·김경근 2022; 석승혜·장안식 2016; 이지은·이재완 2015). 이는 사회통합의 달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추구하는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작동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험인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와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있어 위험인식은 양가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경쟁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쟁적 매개효과는 이론적으로 입증된 ‘이론적 비밀관 매개효과’이지만 결과 해석과 현실적인 의미에 있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해석을 위한 하나의 가설은 사회적 신뢰와 위험인식의 양방향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다. 이론적 비밀관 매개모형은 타당한 이론에 근거했을 경우, 변수 이면에 존재하는 양가적인 작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하형·김수영 2020).

본 연구의 경쟁적 매개효과는 사회적 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는 부정(-) 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관계가 사회적 교환이론이 주장하듯 동시적 그리고/혹은 반복적으로 교환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양방향의 관계를 가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는 언제나 위험감수를 수반하며(Renn 2008; Cook 2005), 신뢰와 위험인식의 교환은 다시 각각의 인식 수준에 양방향의 영향을 미쳐 동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뢰의 맥락적 속성(Earle et al. 2010)은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 특정 상황에서 오히려 신뢰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각각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만들어낼 결과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상술한 바와 같이 위험인식이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기 이해의 위험 측면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 또한 탐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각각의 변수 간 영향 관계가 드러났으나, 연구되지 않았던 사회적 신뢰와 위험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라는 변수들 간의 관계와 작동 매커니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인 변수들로 변수 간 선후 관계의 정립이 어려운 변수들이다. 그러나 위험인식의 문화이론을 통하여 개인의 경험과 배경, 사회관, 가치관, 신념이 종합되어 형성되는 신뢰가 사회의 취약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매개변수인 물리적 위험과 사회·경제적 위험을 통해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매커니즘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위험인식을 위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분석을 통해 종류가 다른 위험인식들이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얼마나 제한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함의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가 활용한 데이터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며, 각종 경제활동이 제한을 받던 2021년 가을에 수집되었다. 따라서 일반화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이는 곧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또한 자료상의 한계로 개인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해당 위험에 대한 경험 유무와 정치적 성향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장애인, 여성, 노인, 저소득층을 사회적 약자로 통칭함으로써 이들 각 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추가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관계가 본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에 국한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위험인식이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양가적 매개효과를 내며, 그 영향의 크기가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신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한국 사회에서, 최근 안전과 위험인식에 대한 관심은 부쩍 높아진 한편 사회적 약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 위험인식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하였다. 사회적 신뢰와 위험인식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집단을 대하는 태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더 많은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들 연구는 위험관리자이자 사회적 통합을 담당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고은·김경근. 2022.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 분석: 능력주의의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9(3): 177-205.
- 김수아·임동균. 2016. “위험사회의 사회심리학: 위험인식의 주관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2): 45-75.
- 김하형·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 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 박인권. 2018.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공간과 사회》 28(2): 71-114.
- 박종민. 2014.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 동아시아로부터의 증거.” 《정부학연구》 20(2): 63-87.
- 석승혜·장안식. 2016. “한국사회의 마이네리티 생산과 차별태도” 《한국사회》 17(1): 81-122.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임동균·양종민. 2022. “누구를 위해 얼마나 낼 것인가?: 복지 수혜대상에 따른 납세 의향과 사회적 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23(3): 135-164.
- 윤인진. 2020.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인권개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범주화와 보편적 성원권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219-255.
- 윤인진·송영호. 201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 19(1): 95-131.
- 이영애·이나영·이현주(역). 2010. 《위기감: 위험지각의 새 조망》. Slovic, P. *The Feeling of Risk: New Perspectives on Risk Perception* (4th ed). 시그마프레스.
- 이지은·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359-390.
- 이현숙·장승민·신혜숙·김수진·전경희(역). 2019.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 Kline, Rex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학지사.
- 임현철. 2019. “사회적자본과 안전인식 그리고 개인웰빙에 관한 연구: 사회적자본과 안전 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1): 1-22.
- 정순돌·최혜지·배은경·이경민. 201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 《한국노년학》 31(3): 813-829.
- 정진성·이재열·조병희·구혜란·안정옥·장덕진·고형면·장상철. 2010. 《위험사회, 위험 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수현·정순돌. 2019. “사회위험수준인식과 노인낙인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9(2): 131-159.
- 황세영·강정석·강혜자. 2017.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41(3): 181-206.
- Khaltar, O.·김태형. 2022. “코로나 19 위기와 한국인의 복지태도: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2): 283- 306.
- Cook, K.S., T. Yamagishi, C. Cheshire, R. Cooper, M. Matsuda, and R. Mashima. 2005. “Trust Building via Risk Taking: A Cross-societal Experi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2): 121-142.
- Dake, K.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21-37.
- Douglas, M. and A. Wildavsky. 1983.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 Earle, T. and M. Siegrist. 2008. “Trust, Confidence and Cooperation Model: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rust and Risk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8(1-2): 17-29.
- Finucane, M.L., P. Slovic, C.K. Mertz, J. Flynn, and T.A. Satterfield. 2000. “Gender, Race, and Perceived Risk: The White Male Effect.” *Health, Risk and Society* 2(2): 159-172.
- Flynn, J., W.Burns, C.K. Mertz, and P. Slovic.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3): 417-429.
- Honarvar, B., K.B. Lankarani, A. Kharmandar, F. Shaygani, M. Zahedroozgar, Rahmadian M.R.Haghighi, and M. Zare. 2020. “Knowledge, Attitudes, Risk Perceptions,

- and Practices of Adults toward COVID-19: A Population and Field-based Study from Ir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 731-739.
- Kahan, Dan M. 2006. “Fear of Democracy: A Cultural Evaluation of Sunstein on Risk.” *Faculty Scholarship Series*. Paper 104.
- Kahan, D.M. 2008. “Cultural Cognition as a Conception of the Cultural Theory of Risk.” *HANDBOOK OF RISK THEORY*, S. Roeser, ed., Forthcoming,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Risk Regulation Research Paper: 08-20
- Kahan, D.M., D. Braman, J. Gastil, P. Slovic, and C.K. Mertz. 2007. “Culture and Identity-protective Cognition: Explaining the White-male Effect in Risk Perception.”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4(3): 465-505.
- Kollock, P. 1994. “The Emergence of Exchange Structures: An Experimental Study of Uncertainty, Commitment, and Trus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2): 313-345.
- Mehmetoglu, M. 2018. “Medsem: A Stata Package for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ational Economics and Econometrics* 8(1): 63-78.
- Molm, L.D., N. Takahashi, & G. Peterson. 2000. “Risk and Trust in Social Exchange: An Experimental Test of a Classical Propos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5): 1396-1427.
- Nunnally, J.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Park, E., C.W. Scherer, and C.J. Glynn. 2001. “Community Involvement and Risk Perception at Personal and Societal Levels.” *Health, Risk and Society* 3(3): 281-292.
- Renn, O. 2008.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Earthscan. London: Earthscan.
- Satterfield, T.A., C.K. Mertz, and P. Slovic. 2004. “Discrimination, Vulnerability, and Justice in the Face of Risk.”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4(1): 115-129.
- Siegrist, M. and J. Árvai. 2020. “Risk Perception: Reflections on 40 Years of Research.” *Risk Analysis* 40(S1): 2191-2206.
- Slovic, P. 1999.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assessment Battlefield.” *Risk Analysis* 19: 689-701.
- Tyler, T.R. 1984. “Assessing the Risk of Crime Victimization: The Integration of Personal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Socially Transmitted Inform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0(1): 27-38.

- Wachinger, G., O. Renn, C. Begg, and C. Kuhlicke. 2013. "The Risk Perception Paradox -implications for Governance and Communication of Natural Hazards." *Risk Analysis* 33(6): 1049-1065
- Wildavsky, A. and K. Dake. 1990. "Theories of Risk Perception: Who Fears What and Why?" *Daedalus* 119(4): 41-60.
- Zhao, X., J.G. Lynch Jr., and Q. Chen.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9&act=view&list\\_no=421772&tag=and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andkeyWord=%EC%82%AC%ED%9A%8C%EC%A1%B0%EC%82%AC](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9&act=view&list_no=421772&tag=and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andkeyWord=%EC%82%AC%ED%9A%8C%EC%A1%B0%EC%82%AC) (접속일: 2023.07.16.)
- Earle, T.C., M. Siegrist, and H. Gutscher. 2012. "Trust, Risk Perception and the TCC Model of Cooperation1. Trust in Cooperative Risk Management 1-50."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inz-Gutscher/publication/254911577\\_Trust\\_Risk\\_Perception\\_and\\_the\\_TCC\\_Model\\_of\\_Cooperation1/links/0a85e53b5aa8daa307000000/Trust-Risk-Perception-and-the-TCC-Model-of-Cooperation1.pdf](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einz-Gutscher/publication/254911577_Trust_Risk_Perception_and_the_TCC_Model_of_Cooperation1/links/0a85e53b5aa8daa307000000/Trust-Risk-Perception-and-the-TCC-Model-of-Cooperation1.pdf) (접속일: 2023.02.16.)
- Science Direct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risk-perception> (접속일: 2023.02.13.)
- Thompson, M., R. Ellis, and A. Wildavsky. 1990. *Political Cultures*. UC Berkeley: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6jb494cj> (접속일: 2023.02.16.)

<접수 2023.10.12; 수정 2023.11.13; 게재확정 2023.11.24>

## **Risk Perceptions as Suppressive Mediators: Exploring the Link between Social Trust and Attitudes toward the Socially Disadvantaged**

Sang Hee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social trust and risk perceptions influence attitudes toward the socially disadvantaged. Utilizing data from the ‘2021 Seoul Surve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risk perceptions, which has yet to be extensively studied, was investigated.

The findings reveal that both physical and socio-economic risk perception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rust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terestingly, suppression effects are observed within the mediation model a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exhibited opposite signs.

These results validate the relevance of the cultural theory of risk perceptions in the Korean context. Furthermore, the necessity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into the intricate dynamic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s underscored.

Key words: risk perception, social trust, socially disadvantaged, multiple mediators